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

이 혜 원⁺

(성공회대학교)

이 향 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유 정 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이 상 애

(평택시청소년쉼터)

장 혜 영⁺⁺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권감수성, 인권교육프로그램

* 이 연구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수행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최종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권리가 당위적 선언이나 법적 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부모, 교사, 아동복지전담인력 등 지역사회 성인이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상애·이혜원, 2009). 이에 200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 인권교육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5조는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과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무, 체벌금지, 참여보장을 제안하는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체벌금지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체벌금지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체벌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허용된 것도 아니다. 그 결과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거나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해 우울감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2주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1.3%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더구나 학생자살이 2008년에는 309명으로 급증했고, 학생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판정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84.5%인 4,713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0.16%인 9건의 사례만이 법원의 공적 친권개입에 의해 친권을 주장하는 가해부모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고, 재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대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방과후 야간보호까지 상당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연계되고 통합되어 그 효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어린이재단, 2009)는 아동 대상 인권교육에 앞서 교사와 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검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직 교사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성보, 2002).

최근 교사 체벌 동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체벌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한국일보, 2010년 7월 23일자). 그러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일본에서는 체벌이 여전히 자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와 같은 체벌 관련 법률의 폐지와 함께 교사의 공문 부담을 줄여 체벌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 행

정과 문화를 인권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일반적 명칭은 교사이다. 변숙영·서지영·장명희(2007)는 교사의 직무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일상생활지원, 학습·놀이·특별활동지원, 가족지원”으로 정의했다. 실제로 교사는 빈곤지역 취약가정의 양육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후 야간까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는 아동권리보장영역을 강화했다(성태숙, 2010). 따라서 교사는 담당직무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가치를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교육은 그 효과성, 즉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인권교육 참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때 인권의식은 일상생활 속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의미하며, 인권교육은 바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동안 인권침해라고 느끼지 못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인권침해로 인한 결과를 지각하고,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지각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게 된다(문용린, 2003).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행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직무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가?

2. 선행연구 고찰

1)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인권은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권리는 법률이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힘이다. 따라서 인권은 헌법 등 국내법은 물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을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생명존중,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가치에서 비롯된다(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고,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인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도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그런데 인권교육이론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인권의식을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된 인권옹호 행동을 도덕적 행동의 하나로 간주하고 도덕성과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제를 빌어 설명하는 인지발달론적 접근과 공감정서발달론적 접근, 그리고 도덕심리발달론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들이 있다(문용린, 2003; 문미희, 2006; 이상희·이혜원, 2007).

이들 가운데 도덕심리발달론과 의사결정과정이론에 기초한 Rest(1994: 1-26)는 인간의 행동은 인지와 정서가 복잡하게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네 가지 심리적 과정, 즉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권감수성 과정,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 인권옹호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특히 인권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감수성을 인권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인권감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문용린(2002)은 인권감수성을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했다. 상황지각능력은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능력이고, 결과지각능력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식 능력이고, 책임지각능력은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다. 따라서 인권감수성교육은 자기존중에서 타인존중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인권옹호행동실천력이 향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인권감수성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충희(2003)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고,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낮음을 검증했다. 이상희·이혜원(2007)은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남녀학생의 상황지각능력과 여학생의 인권감수성 전체 및 결과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선(2007)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인권이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자신은 물론 클라이언트의 권리옹호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애·이혜원(2009)은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전체와 결과지각능력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치과의료분야(Bebeau, 1994), 간호분야(Duckett and Ryden, 1994), 의료분야(홍성훈, 2000)에서 Rest(1994: 1-26)의 도덕성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의료인

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교사 특히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¹⁾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은 이론에 기초한 인권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사와 아동의 소통을 위한 참여식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두리하나공부방·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2007)은 2005년 3월부터 모임을 갖고,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을 만들었다. 이 인권생활수칙은 공부방 교사가 아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권지킴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아동과 교사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정리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318 Happy Zone²⁾사업지원단(국가인권위원회, 2009)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이용 청소년 인권의식 강화사업으로 1318 Happy Zone인권꽃밭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했다. 제1단계인 땅일구기(2007년 9월~2008년 2월)는 교사가 청소년과 함께 1318해피존 권리헌장을 제작하고 선포했다. 제2단계인 씨앗뿌리기(2008년 3월~12월)는 인권교사교육을 위한 소모임과 해피존 전국 캠프를 통한 인권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피존센터 이용청소년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제3단계인 꽃피우기(2009년 1월~ 5월)는 인권교육매뉴얼을 발간하고 전국 30개 해피존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제4단계인 꽃밭가꾸기(2009년 6월~현재)는 전국 31개 해피존에서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대상을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보다는 아동·청소년대상의 권리교육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박경양(2005)은 지역아동센터 교사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다양한 교육과 복지, 문화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친인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이들 가운데 Bebeau(1994)와 Duckett and Ryden(1994)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딜레마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의료인의 인권감수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홍성훈(2000)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의과대학생들의 도덕적 추론능력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욕구와 직무특성에 따라 토론 수업 이외의 다른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해피존은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로 2006년 11월부터 개소를 시작하여 2009년 9월 현재 전국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3. 프로그램의 개발

1) 인권교육 전문가집단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회의 결과 분석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총 8명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 인권센터 '들'과 청소년쉼터의 인권교육 실무자 3명,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회의를 총 12회 실시했고, 그 결과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표 수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하는 2009년 인권교육 프로젝트는 본래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어떻게 생각하며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동의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방향이 아동 대상 인권교육 개발에서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으로 전환되었다.

(2) 참여형 교육방법의 적용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3,400여개가 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소속된 지역아동센터는 1,740여개가 넘는 상황이다. 사실 모든 교사들을 교육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식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의식, 일제식 학습방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참여형 인권교육방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1, 2차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원칙이 되었다.

(3)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인권교육 강사단=소모임 슈퍼바이저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총 12회기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활동계획안까지 작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 강사단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당사자인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등의 강점을 살려 소모임의 슈퍼바이저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4) 인권교육 소모임 활동

인권교육의 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민과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모임 활동을 계획했다. 소모임은 각 권역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일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계획 상 소모임은 전국 총 6개 정도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들의 참가신청이 예상 외로 많았기 때문에 총 12개의 모둠으로 운영했다.

2)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와 하위목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하위개념에 근거하여, 세 가지 하위목표는 상황지각능력의 향상, 결과지각능력의 향상, 책임지각능력의 향상이다.

(2)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①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인권센터 '들'(2010)의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와 두리하나공부방 외(2007)의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에 기초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직무 특성과 센터의 현실에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회의를 통해 재구성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는 없거나 1~2명 정도여서 선임의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 수퍼비전도 공유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 낼 수 있는 장이 부재한 상황이고, 아동들과의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다. 물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각종 활동을 통해 이를 해소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동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설장이 아닌 교사들이 참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인권 존중적인 관점을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상황을 인권존중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2회의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구성했다. 제1차 워크숍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인권, 교사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활동과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사례를 통해 인권 존중적인 관점

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서적 과정으로 설계했다. 제2차 워크숍은 8시간 프로그램으로 제1차 워크숍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모색한 대안들을 실천해보고 이를 발표하여 나누는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동기부여와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부모 등의 역할로 나누어 논의하는 활동으로 설계했다.

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목표에 연계된 활동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내용과 활동목표

인권교육 단계	회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하위목표
1차 워크숍				
준비		사전검사	인권감수성에 대한 사전검사	
친교	1	몸풀기 ·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 • 인사나누기 • 집단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과 소개 • 서로 친근감 형성 • 프로그램 목적과 진행과정 이해
인권의 이해 및 인식전환	2	인권의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꽃 • 우리들의 수다 : 생활 속 인권 경험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지각능력 향상 • 인권의 성격·가치 이해 • 자신의 삶을 인권으로 해석
	3	가웃가웃 인권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인권의 가치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지각능력 향상 • 일상 속 올바른 인권의 가치 이해
인권침해 사례분석 및 대안모색	4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인권뉴스! : 상황극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결과지각능력 향상 • 인권의 가치를 사례로 재해석 • 인권실천 의지 향상
	5	과제 찾기와 교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 인권선언문 만들기 • 프로그램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책임지각능력 향상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의 인권을 옹호 실천과제 찾기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이해와 민주적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
2차 워크숍				
지난 교육 환기	6	몸풀기 ·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 • 인사나누기 • 1차 워크숍과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결과지각능력 향상 • 참여자간 친근감 형성 • 지난 교육 과제 실행 결과 공유
인권 실천가로서의 역량강화	7	평화 대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 평화대화 • 갈등해결 평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책임지각능력 향상 • 타인 배려·존중의 의사소통방법 습득
	8	과제 찾기와 교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 실천을 위한 역할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지각능력 향상 • 인권실천 과제찾기 • 인권실천 다짐 나누기
마무리		사후검사	인권감수성에 대한 사후검사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어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크게 3단계, 즉 도입단계(인권의 이해와 인식전환), 중간단계(인권침해 사례분석과 대안모색), 종결단계(인권실천가로서의 역량강화)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가능한 시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총 2회의 워크숍을 통해 활동목표에 따라 구분된 활동내용에 기초하여 총 8회기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먼저 도입단계는 1회기부터 3회기에 걸쳐 친교활동과 교사들의 생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인권 존중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일상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중간단계는 4회기부터 5회기에 걸쳐 인권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옹호활동이지만 사회 전반의 흐름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회의 반인권적 모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 혹은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과 부모의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종결단계는 6회기부터 8회기에 걸쳐 인권에 대한 지식과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 기법을 습득한다. 특히 인권에 대한 옹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인권상황으로 지각하고,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국가, 지역사회조직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옹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단계에서 매 회기의 활동내용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통합하고 있으며, 매 회기의 활동목표는 3개 하위목표인 상황지각능력의 향상, 결과지각능력의 향상, 책임지각능력의 향상이 통합되어 있다. 이로써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다.

③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과정

■ 1회기 : 몸풀기·마음열기

준비물	동물이름 적힌 쪽지, 경쾌한 음악
내용	친교활동
활동목표	- 놀이를 통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초대받은 자로서의 느낌을 갖고 서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진행과정	- 인권감수성 사전검사 - 프로그램 목적과 일정 소개 - 공동체놀이: 내 짝 찾기, 눈감고 왈츠를, 손매듭 풀기 - 마무리

1회기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했으며, 실제 활동 진행과정에서 교사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회기 : 인권의 발견

준비물	큰 가방이 그려진 전지, 펜, 스카치테이프, 가위, 권리카드, 인권의 꽃 활동지 등
내용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삶 속에서 인권 상황 인식하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가치를 안다. - 자신의 삶을 인권 존중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꽃 만들기 - 우리들의 수다: 생활 속 인권 침해/가해 사례 나누기 - 여행가방 꾸리기: 여행의 필요한 다양한 물건과 권리를 이해하기 - 세계인권선언문 살펴보기 - 활동 후 느낌 나누기

교사들이 2회기에서 인권의 꽃을 그린 후, 이들 가운데 몇 개를 구기거나 버리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시를 통해 존중감을 침해하는 경험을 하고 그 느낌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 또는 가해 상황으로 확대하여 토론했다.

■ 3회기 : 가웃가웃 인권의 가치

준비물	A4 색지(2종류) 1인당 6장씩, 16절지 색지 모듬별로 1장, 펜, 셀로판테이프 등
내용	인권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올바른 인권의 가치 발견하기
활동목표	일상을 통해 인권 가치에 반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올바른 인권의 가치 이해한다.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와 위협하는 가치 찾아보기 - 모듬활동: 진정한 인권의 가치를 찾아보기 - 강의: 인권의 가치 제대로 만나기 - 세계인권선언문 살펴보기 - 활동 후 느낌 나누기

교사들이 3회기 인권의 가치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반추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 4회기 : 인권의 눈으로 세상 보기

준비물	펜, 전지, 포스트잇, 색상지, 목걸이이름표, 스카치테이프, 풀 등
내용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인권적으로 해석하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가치들을 기억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접목할 수 있다. - 아동들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찾고 지켜질 수 있는 태도를 향상한다.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 퍼포먼스: 나와 인권과의 거리는? - 교사들의 경험을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기 - 나눈 이야기들을 인권기사로 작성하기 - 상황극으로 구성하여 발표하기 - 모듈별 토론: 인권의 가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관계나 어려움이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려는 다짐하기.

4회기는 교사들이 평소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상황을 인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인권의 가치보다는 종교적 가치로 상황을 인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5회기 : 과제 찾기와 교육평가

준비물	필기도구, A4용지, 전지, 매직 등
내용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과제를 찾고 실천하려는 의지 갖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한다. -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찾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해하기 - 영상피드백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선서 만들기 - 교육평가하기

교사 각자가 지난 회기까지의 인권교육을 통해 성찰한 과제를 자신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선서문을 각자 5개 조항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모듈별로 5개 조항으로 다듬어 발표했다. 모듈 발표 후, 전체 참여교사들이 하나 되어 5개 조항으로 만들어 보았으나 시간이 계획보다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6회기 : (2차 워크숍) 몸풀기 마음열기

준비물	전지, 색종이, 매직, 색연필, 싸인 펜, 가위, 풀, 양면테이프
내용	- 1차 워크숍 과제공유 - 인권나무 열매: 인권나무가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와 방해 요소
활동목표	- 지난 교육의 공유하고 아동인권 존중하는 교사로서 필요한 과제를 찾는다. - 인사나누기 - 우리는 모두 다르네
진행과정	- 인권나무심기: 필요한 요소와 장애 요소를 찾기 (1차 워크숍의 결과인 인권선언문을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 모듈별 발표하기

지난 회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선서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6회기에서는 이를 모듈별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때 시설장과의 갈등 발생,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무례함으로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 7회기 : 인권존중의 기법: 비폭력 평화 프로그램

준비물	영화CD, 의사소통 그림 자료, 크레파스, 색 펜, 스카치 테이프, 가위, 색지, 전지
내용	평화, 갈등해결교육, 비폭력 대화기법
활동목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익힌다. - 프로그램 목적과 진행일정 소개하기
진행과정	- 강의: 인권과 평화, 갈등해결 교육, 비폭력 대화 - 관찰기법 익히기 - 활동 후의 느낌 이야기 나누기

7회기는 비폭력 대화기법 가운데 특히 관찰기법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은 관찰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나 생각을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 8회기 : 과제 찾기와 교육 평가

준비물	6회기 활동 결과물(인권나무)
내용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 실천의지 다지기
활동목표	- 인권실천을 위한 과제를 찾는다. - 인권실천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기로 다짐한다. - 인권나무 재확인
진행과정	- 인권나무의 해충(인권의 방해요소)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찾기 - 모듈별로 논의 결과 발표하기 - 사후평가 및 교육평가하기

교사들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다시 환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인 차원, 지역아동센터 차원, 지역사회 차원, 중앙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찾아본 후, 이를 모듈별로 발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4.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광역행정지역단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회기별 과정평가를 수행했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교사 모집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공지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권역별로 30명 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6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다시 3개 권역으로 묶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3회의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 권역별 상세일정 및 참여인원은 <표 2>, <표 3>과 같다.

사전검사는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1박 2일 총 12시간) 시작 전에 참여교사 159명에게 실시했고, 사후검사는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1일 총 8시간) 종료 직후 참여교사 118명에게 실시했다.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표 2〉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 권역별 일정

No.	장소	대상지역	일자	참여인원
1	과천	서울, 인천, 강원, 경기	2009.10.16(금)-17(토)	17명
2	과천		2009.10.23(금)-24(토)	26명
3	부산	부산, 경남, 제주	2009.10.30(금)-31(토)	28명
4	대구	대구, 경북, 울산	2009.12.4(금)-5(토)	25명
5	대전	대전, 충남, 충북	2009.11.20(금)-21(토)	34명
6	광주	광주, 전남, 전북	2009.11.27(금)-28(토)	29명
			합계	159명

〈표 3〉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 권역별 일정

No.	장소	대상지역	일자	참여인원
1	과천	서울, 인천, 강원, 경기	2009.11.10(화)	35명
2	대구	부산, 경남, 제주	2010.1.8(화)	33명
		대구, 경북, 울산		
3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009.12.18(금)	50명
		대전, 충남, 충북		
			합계	118명

3)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인권감수성 척도는 문용린(2002)이 개발한 것으로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측정하고,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된다. 이 검사지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흔히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10개 갈등 상황 이야기(이하 에피소드)—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생활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노인의 행복추구권—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측정방법은 각 에피소드를 읽고, 각 에피소드마다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 상황지각영역, 결과지각영역, 책임지각영역에서 각각 인권 옹호적 문항 또는 인권과 관련 없는 문항에 평가한다. 인권 옹호적 문항에 대한 평가가 인권과 관련 없는 문항에 대한 평가보다 큰 경우에만 인권 옹호적 문항에 평가한 점수를 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0점을 준다. 즉 에피소드는 10개이고, 에피소드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하위요인이 3개씩(5점 척도)이기 때문에 개별 에피소드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점까지 분포한다. 따라서 성인용 인권감수성 총점은 0점에서 150점까지 분포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문용린(2002)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88, 문미희(2006)에서는 .89, 이

상희·이혜원(2007)에서는 .67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인권감수성 척도의 신뢰도는 .92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SPSS 15.0을 사용하여 대응표본의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고 교사의 인권감수성 변화, 즉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5. 연구의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인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근무지역, 성별, 연령, 거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표 4>와 같이, 근무지역은 수도권 30명(29.4%), 경상권 29명(28.4%), 충청권 26명(25.5%), 전라권 17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별구성은 여자가 88명(86.3%), 남자 14명(13.7%)이며, 교사의 연령은 40대가 42명(41.2%)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32명(31.4%), 30대가 19명(18.6%), 20대가 9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특별시·광역시 42명(41.2%), 시 37명(36.3%), 읍·면 23명(22.5%)로 나타났다.

<표 4>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n=102)	백분율(%)
근무지역	수도권	30	29.4%
	경상권	29	28.4%
	충청권	26	25.5%
	전라권	17	16.7%
성별	남자	14	13.7%
	여자	88	86.3%
연령	20대	9	8.8%
	30대	19	18.6%
	40대	42	41.2%
	50대 이상	32	31.4%
거주지역	읍, 면 지역	23	22.5%
	시 지역	37	36.3%
	특별시, 광역시 지역	42	41.2%

2) 프로그램의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1) 인권감수성 전체 비교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사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총 1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75.8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9.5점으로 나타나 교사의 인권감수성은 평균 1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평균의 차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5> 인권감수성 전체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N	사전검사		사후검사		D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권감수성	102	75.82	31.11	89.52	39.73	13.7	-2.74 ^{***}

* $p < .05$, ** $p < .01$, *** $p < .001$

(2) 인권감수성의 하위척도별 비교

인권감수성의 하위척도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표 6>과 같이 상황지각($t = -2.96, p < .01$) 5.1점, 결과지각($t = -2.32, p < .05$) 4.19점, 책임지각($t = -2.56, p < .05$) 4.41점이 각각 증가했다. 이들 평균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원·최경옥·이혜영(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인권관련 문제를 인권관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지각능력, 문제 상황에서 행동이 자신과 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지각능력,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지각능력을 각각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인권감수성 하위척도별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N	사전검사		사후검사		D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102	23.42	10.82	28.52	13.60	5.1	-2.96 ^{***}
결과지각		25.48	11.85	29.67	13.90	4.19	-2.32 [*]
책임지각		26.92	10.97	31.33	13.50	4.41	-2.56 [*]

* $p < .05$, ** $p < .01$, *** $p < .001$

(3)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 비교

인권감수성 척도의 10개 에피소드별로 측정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3.06점($t=-3.58, p<.001$),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2.55점($t=-2.95, p<.01$),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2.09점($t=-2.60, p<.05$),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2.05점($t=-2.46, p<.05$)의 순으로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사전검사서에서 참여자들이 낮은 점수를 주었던 에피소드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평소 타인에 대한 공감감이 적었던 인권상황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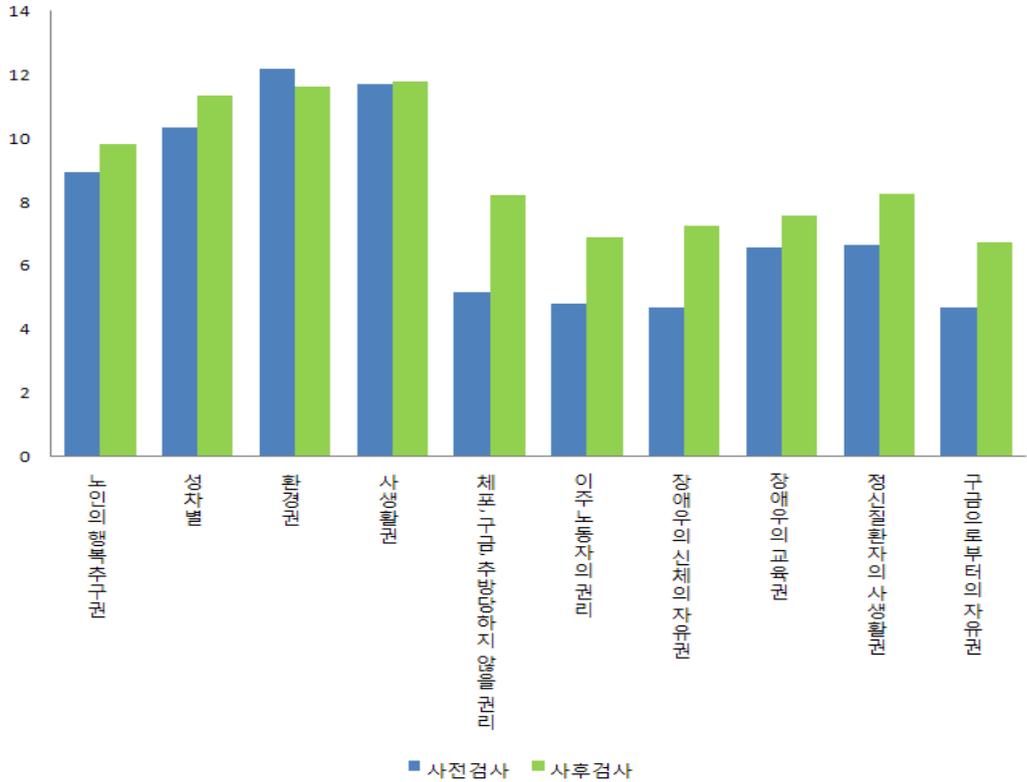
<표 7>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N=102)

에피소드	척도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D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인의 행복추구권		8.93	5.30	9.81	5.12	0.88	-1.21
성차별 받지 않을 권리		10.36	5.19	11.35	4.66	0.99	-1.43
환경권		12.21	4.16	11.62	4.63	-0.59	.95
사생활권		11.73	4.62	11.78	4.75	0.05	-.09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5.16	5.90	8.22	6.30	3.06	-3.58***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4.81	5.23	6.90	6.21	2.09	-2.60*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4.70	5.75	7.25	6.55	2.55	-2.95**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6.59	5.94	7.57	6.50	1.28	-1.13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6.65	6.11	8.27	6.55	1.62	-1.84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4.70	5.43	6.75	6.45	2.05	-2.46*

* $p<.05$, ** $p<.01$, *** $p<.001$

한편 에피소드별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환경권, 사생활권, 성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인권감수성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이들 에피소드에 관련된 인권침해사례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에피소드별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변화

6. 결론

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와 함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총점 1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75.8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9.5점으로 나타나 평균 1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상황지각능력이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3.4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8.5점으로 나타나 평균 5.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5.4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9.6점으로 나타나 평균 4.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6.9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1.3점으로 나타나 평균 4.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효과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의 원 대상과 목표를 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수정하고, 방향 전환을 하여 보다 장기적 대상과 목표인 아동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교사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인권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권교육, 평화교육, 폭력예방교육의 중요한 전제는 단순히 아동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양육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짚었던 성과라 볼 수 있다.

셋째, 인권감수성 척도의 10개 에피소드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에피소드('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평소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에 적었던 인권침해상황의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나머지 6개 에피소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다 더 다양한 인권침해사태와 인권이슈를 논의하고 책임을 지각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선행 인권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아동 대상 인권교육에 앞서 교사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여 이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소재 기초행정지역단위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소모임의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소모임을 통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단지 인권에 대한 지식교육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인권을 통한 교육과 당사자의 인권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모임 집단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초행정지역별 지역아동센터 교사 간 응집력강화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성 높은 다양한 교사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을 참가자의 만족도 및 평가에서 알 수 있다. 이로써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도 단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시·군·구 단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그 효과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는 물론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은 소규모 참여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센터 구성원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인권교육의 인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권의식의 변화에 필요한 심리적 저항을 줄어나갈 수 있는 참여 중심의 교육방법을 정착시켜야 한다. 교육의 효과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면, 사회복지사, 교사, 부모 대상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보통 1~2시간의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나 심지어 온라인 인권교육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회기, 참여인원 수, 교육방법 등이 인권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역적인 '소규모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회성 또는 단기간 교육으로 이미 성인이 된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인권교육 이후 참여 교사가 체험해야 하는 자기성찰과 자기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인권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모임은 교사의 근무지역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남으로써 효과적인 후속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전문가의 발굴과 성장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인권교육의 피교육자로만 간주될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인권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처우조건의 향상 등 현실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야간까지 함께하는 교사 자신이 인권전문가로서 거듭날 때 자라나는 아동에게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곧 인권친화적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인권교육실천 우수 사례집』 51-95.
- 김충희. 2003.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리하나공부방·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인권교육모임·인권운동사랑방. 2007.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
- 문용린.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문용린.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 문미희. 2006.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Rest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0(2): 341-362.
- 박경양. 2005. "빈곤결식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69: 28-31.
- 변숙영·서지영·장명희. 200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개발 연구-지역아동복지사

- (가칭)의 직무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16, 37.
- 성미영·서영숙. 2008.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헌신도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5(1): 52.
- 성태숙.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진단과 전망”.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평가 대 토론회 자료집』.
- 심성보. 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어린이재단. 2009.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Assault Prevention Facilitator 양성교육 자료집』.
- 이상애·이혜원. 2009.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16: 1-29.
- 이상희·이혜원. 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학교사회복지』 12: 47-75.
- 이혜원·최경옥·이혜영. 2009.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론 교과목의 개발과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29: 73-96.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10.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최종보고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한국일보. 2010년 7월 23일자. “학교 체벌, 대안이 문제”.
- 홍성훈. 2000.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beau, M. J. 1994. Influencing the moral dimensions of dental practice. In J. R.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121-14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ckett, L. J. & Ryden, M. B. 1994. Education for ethical nursing practice. In J. R.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5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est, J. R. 1994. Background: Theory and research. In J. R.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1-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Focused on Human Rights Sensitivity-

Lee, Hye-Won

(Sungkonghoe University)

Lee, Hyang-Lan

(Korea Child Policy Research)

Yoo, Jung-Eun

(Sungsan Graduate School)

Lee, Sang-Ae

(Pyeongtaek Youth Shelter)

Jang, Hye-Young

(Associ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for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on 102 teachers working in community child center.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statistically improved. Second, the teachers' ability of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and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improved. Third,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on "the right not to be arrested illegally", "physical liberty of the disabled", "the right to labor by migrant workers", and "freedom from detention" was statistically impro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Key words: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human rights sensitivity,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